교구자치시대, 24교구본사를 가다

⑫ 조계종 제15교구본사 통도사

조계종은 24곳의 교구본사를 통해 교구 자치를 실현 중이다. 한국불교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전법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만나 각 교구의 활약상과 미래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현덕 스님은…1973년 통도사 비로암으로 입산, 원명 지종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했다.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봉암사 태고선원, 상원사 청량선원, 칠불사 운상선원, 통도사 극락암 호국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통도사 총무국장과 용화사 주지를 역임했다. 2023년 3월부터 통도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사진=하성미 기자**

“통도사 가풍은 ‘소통’…전통 지키고 미래 열어”

대담=한명우 대표 · 정리=여수령 기자

신라시대 자장 율사가 창건한 통도사는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계율과 수행의 전통을 이어온 불보종찰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된 역사문화도량이자, 승가교육과 문화포교, 지역사회 복지까지 다양한 역할을 아우르는 총림으로 든든히 자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모시고 있는 도량으로, 어른을 중심으로 대중이 함께 수행하고 생활하는 전통을 지키면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미래로 잇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포교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는 10월 12일 양산 통도사에서 주지 현덕 스님을 만나 통도사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들었다.

Q 2023년부터 교구를 이끌며 느끼신 소회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큰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이끈다’는 생각보다는 대중과 함께하며 뒤에서 모신다는 마음으로 소임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보다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도사는 총림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임회에서 큰 방향을 논의하고 종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하면 종무소에서 실행합니다. 7국장을 비롯해 과장 스님들이 상주하며 업무를 분담하는 구조가 오랜 세월 자리 잡았습니다. 또 종무원과 신행단체, 봉사자 등 현장에서 애쓰는 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통도사가 여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Q 통도사는 불보종찰이자 종정 스님께서 주석하시는 도량입니다.

종정예하를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어른 스님께서 대중과 함께 공양하고 생활하시며 수행하고 공부하는 모습만으로도 통도사의 가풍이 드러납니다.

앞으로도 통도사가 수행과 전법의 중심 도량으로 자리하려면 어른을 중심으로 대중이 화합하는 가풍을 잘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Q 세계유산인 통도사의 가치를 보전 · 계승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전통은 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통도사는 오랜 세월 불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종정예하께서 과거 통도사의 어려운 시기에 수행도량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또한 역사와 문학, 문화와 예술을 두루 살피며 차 문화와 한글, 한지와 옻칠 등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데도 힘써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문화의 가치를 찾아 미래 세대에 전하는 것 역시 불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Q 관람료 무료화 이후 방문객이 늘면서 편의시설 부족 등이 과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통도사 방문객이 28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주차와 교통 문제가 심각해 신도들조차 오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통도사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지역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방문객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면서도 수행환경과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세계유산을 찾는 국민의 편의와 통도사의 수행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Q 통도사는 영축문화축제 등 다양한 문화포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는 개인의 인격 완성에 그치지 않고 모든 중생이 행복한 세상을 지향합니다. 문화 역시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영축문화축제도 단순히 볼거리를 제공하는 행사가 아니라 통도사의 전통과 불교문화가 오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종정예하 모시며 대중과 함께하는 교구”
임회 · 종무회의 시스템 바탕 안정적 운영
세계유산 보전과 문화포교 · 수행환경 보호
불교대학 1500명 ‘기록’…“참불자 되게”
출가 · 교육 · 복지까지 미래불교 토대 마련

를 보여주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화를 찾아내고 제대로 자리매김해 발전시키는 것은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일입니다. 통도사는 우리의 본래면목을 찾아 살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Q 출가자 감소 속에서 통도사의 승가교육 전통을 어떻게 이어갈 계획입니까.

출가자 감소는 통도사만이 아닌 한국불교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출가는 도피가 아니라 대자유인이 되는 길입니다. 불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린다면 출가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출가의 의미를 바르게 알리고 발심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통도사는 영축율학승가대학원과 염불대학원, 승가대학 등을 통해 율학·염불·교학을 아우르는 교육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통을 지키면서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Q 통도사 불교대학에는 올해 역대 최다인 1500명이 등록했습니다.

교육의 조건은 스승과 도량, 도반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통도사 불교대학은 스님들이 직접 강의하고 훌륭한 강사들이 많습니다. 도량도 좋고, 무엇보다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이 열심히 발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데도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통도사를 직접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 분이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삶에서 실천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포교입니다. 불교대학이 강의만 듣는 곳이 아니라 참된 불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공부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불교계 최초의 개방형 수장고를 건립하는 등 성보 보존과 활용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통도사는 많은 성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박물관이 노후하고 공간도 좁아 제2수장고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개방형 수장고를 통해 성보를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대중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순회전을 개최하는 등 통도사의 성보와 불교문화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기회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중한 성보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은 물론 현대의 유물과 문화까지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로 하겠습니다.

Q 앞으로 통도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통도사는 불교계에서 비교적 일찍 자비원을 시작했고 양산뿐 아니라 울산과 마산 등에서 요양원과 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와 함께 스님들의 노후복지도 더욱 세심하게 살펴나갈 것입니다.

또 어린이법회와 어린이합창단을 다시 운영하고 청소년 포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도사는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그 바탕에는 사부대중의 신행공간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Q 마지막으로 불자와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통한다’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통도사의 ‘통(通)’처럼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가 서로 통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화합한다면 우리 사회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통도사는 종정예하를 잘 모시고 총무원장 스님이 추진하는 종책에 발맞추면서 종단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통도사를 찾는 분들이 행사만 보고 돌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불교와 인연을 맺었으면 합니다. 그 인연이 공부로 이어지고, 공부가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통도사가 사부대중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5월 15일 ‘통도사 박물관 개방형 수장고 준공식’에서 종정 성파 대종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는 올해 4월 24일 방문객 편의 증진과 수행환경 보호를 위한 문화공간 건립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통도사는 매년 가을 개산대재를 봉행하며 자장 율사의 창건 정신과 불법 전승의 의미를 기리고 있다.



통도사 불교대학에는 전국 최대 규모인 1500명이 재학하고 있다. 올해 3월 7일 열린 입학식 모습.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과 한명우 현대불교 대표이사가 대담하고 있다. **사진=하성미 기자**